

72호, 2008.2

사람 / 평택 투쟁,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 경기남부평통사 공동대표 인터뷰 / 이유빈

시사 /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판 '미국의 푸들'이 되려는가? / 유영재

현안 / 3월에는 대북 전쟁연습 막는 반전평화운동에 나서자 / 오혜란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영화평> '해보기 좋은 곳, 관동여인숙'을 훑쳐보다 / 이경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인천평통사와 함께 하면서 / 김일희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평화협정 실현에 대한 강연회를 듣고... / 김숙희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힘들고 먼 산행도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만들어 내듯이 / 최형석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친 것이 죄라면... / 김형근

평택 투쟁,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면 다들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씩 떠오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황새울 들판을 밀어 제끼고 강행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지난해 4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난 이후 평택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기남부 평통사” 이름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 평택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경기남부 평통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쏟아지길 기대하면서 2월 22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경기남부 평통사(준)의 두 공동대표를 만났다.

● 경기남부 평통사(준) 공동대표 이종필 선생님

평택에서 20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근무해 왔던 사립학교 내부에 비리가 너무 많아 나 홀로 시작하여 학원 민주화 투쟁을 10년 동안 벌였다. 그 결과 지금은 교장도 몰아내고 학교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교사가 되기 전에는 연극에 목숨 걸다시피 했었고 방송국 물도 잠깐 먹었다. 평통사의 순수함과 꾸준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추리 투쟁에서 많이 가까워졌다. 열심히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고, 2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내가 사회적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대표를 맡게 되었다.

● 경기남부 평통사(준) 공동대표 장창원 목사님

오산 다솜교회 목사이다. 한국 노동 네트워크 협의회 공동대표와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 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솜교회에서는 오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창립되었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시절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통일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부터 평통사와는 인연을 맺어 왔다. 평택 미군기지 싸움을 중심으로 반드시 빼앗긴 땅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경기남부 평통사가 드디어 창립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대표도 선뜻 맡게 되었다.

-지난 1월 25일에 경기남부 평통사(준) 첫 번째 행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였나요?

그동안 준비모임을 몇 번 가졌지만 회원들끼리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지에 대한 소개도 하고 회원들도 한자리에 모여보자 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좀 덜 딱딱하게 하려고 이름은 “첫 발돋움”이라고 붙였지요.

-오랫동안 경기남부 평통사 준비모임을 진행해왔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2002년부터 경기남부 평통사를 만들기 위한 모임을 두세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택싸움이 전국적으로 크게 터진 거죠. 그리고 평택-오산은 아주 오랫동안 미군기지가 있어왔던 지역으로 미군기지로 인해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미군기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미군기지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 평통사 준비모임이 두세 차례 무산된 것도 사실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올해 2008년 2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 박스도 알아보고 그랬죠. 다행히 얼마 전에 좋은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2002년부터 준비모임도 몇 번 무산되고 지역사안이나 특징 때문에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힘이 많이 나지요. 달랑 책상 두개로 시작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도와주면 앞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회원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밖에 안되요. 창립총회 전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서 50명 이상은 늘려야지요. 회원들은 방앗간 운영하시는 분, 개인사업자, 교사, 노동자 등 다양합니다. 오산의 경우, “평화와 통일을 여는 노동 센터”라든지 다솜교회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공부방 등 이미 평통사 활동 방향과 일치하는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경기남부 평통사에 가입한 회원수는 적지만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열망이 누구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남부 평통사를 세우는데 적극 지지하지만 아직 회원가입을 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며 한 다리 더 걸치는 그런 식보다는 정성껏 평통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 창립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활동하는 단체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사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요. 게다가 경기남부 평통사도 문을 연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칭찬합니다. 평택의 경우 “평택 평화센터”와 활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겠지요.

-회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오랜 전부터 적극적으로 평통사에서 활동하고 길을 만들어온 여러 회원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네요. 경기남부 평통사는 핵심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것 같습니다. 침략적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자주적으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고 주한미군을 쫓아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주한미군 문제가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자 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치지 않고 싸우려면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임할 거예요. 늦게나마 시작하는 경기남부 평통사, 앞으로 열심히 잘 해 나갈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늦게

세운 지역 평통사이지만 회원들에게 제일 큰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글·사진 : 이유빈)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판 ‘미국의 푸들’이 되려는가?

정책실장 유영재

한미동맹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10년간 한미동맹이 잘못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한미전략동맹’ 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PSI 및 MD 정식참여, PKO 상비군 창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의 ‘2+2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하고 한미일 3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자행돼 온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침략군화 허용, 용산 미군기지이전 비용 부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미군쓰레기탄약 매입 등이 잘못된 한미동맹의 결과라면 ‘복원’된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자측이 ‘한미전략동맹’을 추진하는 배경은 이제까지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는 ‘전술관계’였던 한미관계를 최소한 동아시아와 같은 지역단위를 공동 책임지는 미-일, 미-호주관계와 같은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외교안보 측근들은 한미 정상의 ‘한미전략동맹선언’을 위해 정부주도 민간형태의 한미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1년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구상이다.

비싼 대가 치를 미국에 대한 짝사랑

한미동맹이 이명박 진영이 그토록 원하는 대로 ‘전략동맹’으로 격상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주변국과의 긴장과 군사적 실효성을 우려하여 적극 가담하지 못했던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적극 참가할 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평화유지군(PKO)’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국이 감행하는 침략전쟁에 감초처럼 끼게 될 것이고,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전략의 지구화를 의미하는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NATO GP)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경쟁이 불붙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과 분쟁지역 민중의 희생과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내용과 시기에서 한층 미국의 입맛에 맞게 요리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및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협상, 추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협상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장병의 근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이는 미군 가족 숙소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든 말든 한미FTA도 체결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미국 퍼주기’로 인한 주권의 유린과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 또한 막심할 것이다.

‘한미전략동맹’ 추진은 시대착오

이명박 진영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되어 한미전략동맹에 목을 매는 것은 냉전의 해소와 중국의 부상, 미국 위상의 약화와 같은 거시적 세계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진영이 한미동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스스로의 발언권과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집착이 미국에 대한 짝사랑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동맹국이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바꾼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회의 이명박 당선 환영 결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악하게도 이명박 진영의 짝사랑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철저히 챙기려 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진영의 ‘미국에 대한 퍼주기’와 ‘비위 맞추기’로 인해 우리의 주권과 국가의 위신은 더욱 훼손되고, 국민의 혈세 낭비와 자존심의 상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소 다자주의’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역풍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

한편, 이명박 진영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한미관계 강화에 따른 중국 쪽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 다자주의(小 多者主義, minilateralism)’를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와 4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3자형태의 소 다자주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구도 정착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한중일 등 3자간 공식·비공식 3자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중관계, 중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진영의 ‘소 다자주의’는 미국과 승미사대주의세력의 용단폭격으로 무참히 깨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연상시킨다. 이를 의식한 이명박 당선자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의 ‘균형자론’이 정치안보적 사안에서 조정역할을 의미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소 다자주의는 환경·질병·재난 등 비정치적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소 다자주의’ 구상은 중국 등이 주목하고 있는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환경·질병·재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엉뚱하고 한가하다. 물론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 다자주의’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소 다자주의’가 마치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구상은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즉, 이들의 ‘소 다자주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 강화가 불러올 역풍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결합하여 동맹 폐기 요구해야

따라서 지금은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할 이명박 진영의 한미동맹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폐기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결합시켜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MD 및 PSI 참여 문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문제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사안들에 대한 집회와 기자회견, 언론기고 등 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3월에는 대북 전쟁연습 막는 반전평화운동에 나서자

자주평화팀장 오혜란

#### ■미 태평양전력이 증강되어 치러지는 대북공격연습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RSOI)이 3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미국은 2007년 8월부터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태평양전력 증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조건에서 실시되는 전시증원연습에 대해 북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북을 단시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첨단 신속기동전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대북 무력시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서 대북공격연습에 대해 북이 얼마나 공포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지 이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 ■전시증원 전력이란?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 전장에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 등 군사자산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으로 상향 발령되면(평시엔 데프콘 4)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미국은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시행해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군사적 조치로는 해/공군 감시전력 증파가 있다. 이러한 조치로도 위기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전쟁시작 초기에 긴요한 항공기와 함모전투단 등 주요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조치를 취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그럼에도 끝내 전쟁이 시작되면 예정된 모든 증원전력을 보내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e)’이 가동된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뿐만 아니라 국가통수기구의 결정에 따라 파견되며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어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 ■올해부터 키 리졸브 연습으로 이름이 바뀌어

올해부터 전시증원연습(RSOI)은 키 리졸브(KR, 주요한 결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자유의 수호자)로 명칭이 바뀐다. 한미당국은 “공동작전계획을 마련하려면 가능한 범주에서 대규모 연합연습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며 “양국군 수뇌부의 견해가 일치해 2008년부터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하고, KR 연습은 한미연합사가, UFG 연습은

한국군이 주관”토록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주관할 UFG 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을 큰 열개로 한 공동작전계획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국군 지휘부의 권한 문제, 미 육·해·공군 구성 군사령부의 지원 범위 등 세부 사항들이 깊이 논의될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주관할 KR 연습은 작전계획 5027 중 3단계인 ‘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대기-이동-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 ■ 전시증원전력의 변화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증원전력의 규모는 육, 해, 공, 해병대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국방부, 2006국방백서, 50쪽)이다.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 합의된 직후인 2007년 7월, 미 합동전력사령부(USJFCOM)는 “한반도 전시증원의 규모를 합리성,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전시증원전력 재조정 계획서를 미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시증원 절차와 규모는 작전계획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이 열개를 갖추는 2008년 하반기에 구체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파견 절차에서는 일본, 괌, 미 본토에서 온 각급 부대가 한반도에 도착한 뒤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됐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미 본토에서 부대 편성을 마친 후에 한반도에 투입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전력의 숫자는 69만에서 10~30만 정도로 줄어드는 대신 첨단 정보, 정찰, 감시 자산과 강력한 타격력을 갖춘 해, 공군력 위주로 증파되어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 ■ 미 증원전력은 본질적으로 대북 침략을 위한 전력

작전계획 5027의 부록으로 포함된 시차별 부대전개체원(TPFDD)에 의거하여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은 남한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반격 작전과 평양 정복, 체제 전복을 위한 전력이다. 남한은 자체 힘으로 북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지 이미 오래됐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대결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이다.

#### ■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 주장은 거짓말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을 대북 공격연습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작전계획 5027-04, 06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스트라이커 여단, 미 제3해병기동여단, 핵 함모, (핵)잠수함을 비롯해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되며 셋째, 야외기동훈련 역시 평양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등 전형적

인 공격 훈련들이 실시된다. 넷째, ‘북의 공격에 대한 방어 후 반격작전’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 연습이 단순한 방어 연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현실에서 한반도 전면전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남북간의 군사력 격차로 북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현재 조건에서 한반도 전면전은 북의 남침보다는 북핵과 미사일, 북한 군 수뇌부 등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곧 작전계획 5026의 가동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0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작전계획 5026에 의거해 북이 남을 공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북한 내 700개 목표지점을 사전에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를 동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방어 후 반격으로 짜인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은 작전계획 5026의 가동에 대한 북의 반격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시증원연습은 불법

잘알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북 체제 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1994년 3월 10일 개정)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2006~2022 국방기본정책서’에서 국방정책목표를 자주적 선진 국방 구현에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점진적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의 조성, 현존·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위 역량의 발전, 국가와 사회 발전에 부합된 선진 국방운영체제의 확립을 3대 국방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전계획 5027은 우리의 국가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 곧 미국식 가치 이식으로 북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헌법은 물론 국방목표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전쟁연습 반대투쟁으로 평화를 실현하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전시증원연습이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악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북미간 적대적인 군사대결구도의 해소는 물론 기습공격의 우려를 없애고 남북미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4년에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했던 예도 있듯이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요구하자. 미 증원전력이 도착하고 전장으로 투입되고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부산, 대구, 광양, 왜관, 군산, 평택, 무건리, 성남, 포항, 만리포 등 전국 각지에서 한미연합사가 벌이는 대북 침략연습을 막는 반전평화운동을 벌이자!

| 투쟁 일정 소개 |

- 76차 평화군축 집회-전시 증원연습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장  
    때와 장소 : 2월 26(화) 12시/국방부 민원실 앞
- 키리졸브 연습기간 투쟁
  - ①기자회견 : 3월 2일 오전 8시/장소 미정
  - ②반전평화인사 릴레이 1인 시위 : 3월 2일~7일 전쟁연습 기간 내내/장소 미정
- 상륙훈련 대응 투쟁  
    때와 장소 : 3월 2일~7일 사이/장소 미정
- 기타  
    미 증원전력의 수용, 이동, 훈련이 벌어지는 전국각지에서 특색있는 반전평화시위

|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해보기 좋은 그 곳, 관동여인숙”을 훑쳐보다

서울평통사 이경아

젊은이들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대학로에 슬기, 영훈, 영석, 경아가 은밀히(?) 모였다. ‘관동여인숙’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동여인숙 제목이 넘 야한데.ㅋㅋㅋ」

연극 공연 시간과 제목을 알리는 문자를 보고, 기대 반, 의심 반의 답 문자를 한 회원이 보내왔다.

며칠 전, 김종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연극 초대권을 얻어 영화모임 회원들과 보기로 했는데, 그 제목이 ‘해보기 좋은 그 곳, 관동여인숙’이었다.

83학번 운동권 출신인 여인숙 주인 인선, 인선과 한때 동지이자 연인이었으나 변절하고 정치권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지낸 현재 간암 말기환자 기영, 조직폭력배 용두, 몸을 파는 여자 함이, 운동권 작가 민철, 공장에 위장취업한 부잣집 아들 봉준,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동여인숙’에 모여 살며,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 연극을 보는 내내 한때 치열하게 ‘사회변혁’을 꿈꿨던 386 운동권 세대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회 밑바닥 사람들의 삶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는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닐런지...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몸부림, 그리고 희망.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한다고 전하는 듯 보였다.

연극이 끝나고, 극장 문을 나서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나영훈 회원은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봐야 해. ‘운동화 끈 질끈 매고 다시 뛰어야 한대잖아’(연극에서 나온 대사임).”라고 답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내부 갈등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좋았어요.” 늘 긍정적인 우리 서 대표님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영화모임의 막내, 슬기는 “글쎄요...”였다. 과연 ‘글쎄요’의 의미는 뭘까? (웃음)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극 연출이 어색해 보였지만, 극 속의 인물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세찬 겨울바람이 불던 밤, 서로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이야기로 뒤풀이 시간이 이어졌다.

썸이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영화모임이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즐거운,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영화모임! 영화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불량쿠폰은 아니고 알짜배기 쿠폰이니 꼭 행운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 인천 평통사와 함께 하면서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김일희

나는 가톨릭교회 신부로서 세상 안에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내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자 사목과 환경 사목을 전담하고 있는데, 삶의 터전인 인천의 한 시민단체에서 몇 년간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시민운동의 한계는 '뚜렷한 목표 없이 회의에만 참석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염성태 대표님께서 평화 통일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다.

빼앗긴 땅 평택 대추리에서 몇 해 동안 함께 하고, 대추분교 옥상에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살길은 미군문제 해결에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평통사와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2일 인천 평통사 총회에서 공동대표라는 마름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성당에 있는 신부가 아니다보니 팔자에도 없는 여러 직함을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라는 명함을 받으니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이번 인천 평통사 총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평화와 통일의 열망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2008년은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 평통사에 중요한 한 해인 것 같다. 평통사가 주축이 되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시안'이 만들어졌다. 이 문서가 평화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반 평화적 태도 안에서 통일을 운운하고 미군 주둔을 더 공고히 하려는 입장이고, 우리 평통사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찾아가 왜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가 해체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협정문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

의식 전환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평통사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통일 갈망을 위한 내적 의식 강화라 생각된다. 이 내적 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회원들 간의 만남과 교육이 필요하다. 올 한해 회원 모두가 만남과 교육을 통해 우리 평통사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협정 실현에 대한 강연회를 듣고...

부천평통사 김숙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분단국가 한반도!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게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5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 좁은 땅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정전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드디어 평화협정 실현이 눈앞에 다가 와 있다.

평화협정 대장정 사업을 앞두고 박석분 팀장님의 강연회를 듣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괴물 같은 나라가 이 땅 한반도에 도둑처럼 들어와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동안 살면서 칼 안든 강도처럼 뭐든 다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쓸 데 없는 비싼 무기도 사라 등등 뭘 요구가 그렇게도 많은지...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비...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강사님의 말씀처럼 미군 주둔 경비로 드는 금액이 한 해 약 4조원이라고 한다. 이 액수면 50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주한미군이 나가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50여년 만에 평화협정의 길이 획기적으로 열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속 주둔해 왔지만 이 평화협정이 체결 되면, 더 이상 주둔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평화협정 대장정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놀랍기도 했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강사님의 말씀처럼 예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실천처럼 주한미군이 나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 더 나아가서는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것이 이번 대장정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암울했던 시절에서부터 많은 열사, 선배님들께서 투쟁해 왔던 지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역사, 지금의 민주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역사가 훗날 우리 모두의, 그리고 나의 역사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의 말처럼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그 때 엄마, 아빠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단다.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이번 대장정 사업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뛰어야 하지 않을까.

추진위원 1인이 길잡이 10인을 모으는 이번 사업, 1차로 10만명의 길잡이를 모으기 위해서는 1만명의 추진위원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지난번의 작전통제권 환수 1만인 선언 때 보다도 훨씬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통사 총회에서 보았던 구호처럼 ‘평화협정 실현! 내가한다!’라는 각오로 정말 대장정 사업에 올인 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나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10만명을 조직하고, 7월 27일에 1만명이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힘들고 먼 산행도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만들어 내듯이

안동평통사 최형석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행을 오래 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을 쓰는 일이다. 그런데 8시간이 넘는 산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 다녀온 이야기를 평통사 회지에 쓰라고 한다. 줄지에 내가 싫어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평통사 때문이다. 하지만 평통사를 사랑하기에 무릎이 부실함에도 겨울 산행에 따라 갔고, 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어찌 보면 평통사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지난 12월에 안동 평통사는 정기 총회를 열었다. 그 내용 중에 2008년부터는 회원 만남의 날을 한달에 한번 정도 꼭 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1월 운영위에서 소백산 등산으로 결정을 했다. 그 때부터 나와 또 한명의 동지 두 사람의 고민은 시작 되었다. 갈까, 말까, 가서라도 베이스캠프 조로 남아 있을까? 다행히 산행을 하기 전날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을 보며 생각을 했다. '차도 사람도 꿈작할 수 없도록 많이 많이 내려라...' 하지만 나의 바람은 바람일 뿐이었다.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깨서 전화를 받아보니 빨리 버스 타는 곳으로 나오라는 사무국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 가도록 하자 그래도 산에는 오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아이젠도 등산스틱도 없이 집을 나섰다. 아~ 이심전심이랄까? 역시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동지의 준비물 또한 나와 같았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었던가? 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다. 준비물이 없어 산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사이도 없이 단체 사진 찍고는 산행이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아이젠과 등산스틱을 휴게소에서 구입했다. 또 한명의 동지는 등산화와 아이젠, 등산스틱 모두 다른 회원의 원조를 받아 같이 올라갔다. 괜히 나만 손해 본 기분이 들었다.

안동에서 출발하여 풍기읍 삼가리 매표소에 도착하고 등산은 시작 되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말자 하는 굳은 마음을 먹고 아이젠을 등산화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눈이 내린 소백산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도록 아름다웠다. 산위에는 두 가지의 색만이 존재했다. 흑과 백, 명암의 정반대 ㄸ트머리에 있는 이 두 가지 색만으로도 온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다. 단순함이 아름다움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나의 몸이 괴로운 것에 비해 나의 눈은 너무도 호강을 하고 있었다. 오후 1시가 다되어 비로소 비로봉에 도착하였다. 등산객들로 가득 찬 대피소에서 제대로 앉을 곳도 없어 엉거주춤하게 먹은 설익은 컵라면과 차가운 김밥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연화봉과 회방사를 거치는 멀고 먼 산행은 계속 되었다. 무릎도 아프고 온몸의 상태도 말이 아니지만 옆에서 함께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동지들이 있어 힘든 산행을 거의 8시간에 걸쳐 나와 또한 동지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아이젠을 벗을 때 아이젠을 버리고 싶었다. 다시는 산에 오지 말아야지, 산책 정도의 산에만 가야지, 마음은 그런데 아이젠이 배낭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회원들보다 늦게 버스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버스에 오르니 온몸이 노곤하고 아팠지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산행을 하는 동안 고생한 것이 일시에 사라져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든 산행을 하며, 형언할 수 없는 절경을 그런 절경을 다시

보라, 스스로 대견한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지어 보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그 먼 산행을 마칠 수 있게 했듯이,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작은 몸짓이라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나의 아름답고 화려한 산행은 끝이 났다. (사진\_ 피재현)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친 것이 죄라면,

전주평통사 준비모임 김형근

◆ 김형근 교사는 2008년 1월 2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이며 이 글은 구속 직전인 27일에 쓰인 글입니다. -편집자 주-

무자년 정월도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변호사로부터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가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200여쪽이나 되는 구속영장 신청서...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고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단가요?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나라의 분단은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저는 무엇하나 숨기지 않고 6.15정신으로 항상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를 탄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이 시대 교육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 구속될지 모르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힘듦이야 있지만, 이렇게 엄병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물러서면 매카시즘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을 당할텐데, 당차게 싸우겠습니다. 혹시 담당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분단 질서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이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옥중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떼러 행정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 승소하세요'하고 후원해 주었던 행정실 동료직원이며 기도하겠다는 친구들, 혹여 구속되면 면회오겠다는 친구들, 같이 싸우겠다는 지인들... 그래서 오늘은 쉼지 않고 훈훈하게 잠을 잘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27일)

##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 서울

#### 6차 정기 총회, 성황리에 열려

1월 26일(토), 저녁 6시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서울 평통사 6차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전마당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관련 영상과 유영재 정책실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회원들에게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추진위원 가입을 권유하여 10여명의 회원이 즉석에서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사전마당을 마무리 하고, 재적 회원 172명 중 참가 60명, 위임 49명, 총 109명으로 총회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시작으로 변연식 대표님이 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영석 공동대표를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민규 회원이 2007년도 회계감사 보고를 꼼꼼하게 해주었고, 나영훈 회원이 2007년도 사업평가안을, 황윤미 회원이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동식 회원이 6기 선출직 운영위원 선임안과 사무국장 인준안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나영훈, 박석분, 원응호, 유호명, 손윤희 회원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총회에 제출된 5개 안은 6기 예산안의 오타 지적을 제외하곤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2007년 모범회원상은 박희정, 신재훈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박희정 회원은 8살, 12살 아들의 엄마로서 상근하기에 어려운 조건임에도 평통사 상근을 결의하였고, 신재훈 회원은 누구보다도 평통사의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서 모범회원으로 뽑혔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뒤풀이에 함께 한 40여명의 회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평통사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정귀남 회원이 자신의 나이를 방년 18세라고 소개하였고, 계속해서 홍근수 회원은 39세, 유호명 회원은 39세, 정혜열 회원은 34세라고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며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정귀남, 홍근수, 유호명, 정혜열 회원 모두 연세가 많음에도 청년의 기백으로 평통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나서고 계시는 그 모습은 회원 모두가 본받아야할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서울 평통사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에 앞장섭시다!

부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실천을 위한 회원 교양

박석분 회원사업팀장님의 교양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사업인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쉽고 재밌게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 정말 멋져요.

1시간 30분의 강의를 듣고 난 후 회원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인지, 뒷풀이를 갈 생각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추진위원 가입서도 적고, 명절 때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받아올 길잡이 용지도 서로 나누며 교양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쯤~한 뒷풀이가 있었답니다.

인천

#### 제6차 정기총회 및 출범식

2008-02-02, 마을사람들 교육실  
쭈김일회, 염성태, 오혜란 님을 공동대표로 선출  
쭈'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결의  
쭈23명이 대장정 추진위원 가입

2008년 2월 2일 늦은 6시 30분, 6차 인천평통사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 후원회원 5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결의, 23명이 대장정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였으며 30여 명이 재정 안정을 위해 회비인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에 열심히 활동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감사를 맡아 온 조성혜 회원에게 공로상이, 손님들이 돼지저금통에 모아 준 30만원을 후원금으로 낸 김정대 신부님이 운영하는 '삶이 보이는 창'에 특별후원상이, 모든 실천에 빠지지 않고 참가한 쿨트 해고자 심자섭 회원과 건설노조 조합원 김병철 회원에게 투쟁상이, 회원 교육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서경혜 회원에게 교육상이,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술자리, 체육대회 등 동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각각 50~70명을 조직한 고영남, 이준걸, 김원식 회원에게 작통권 선언상이, 1년 동안 사무실에 나와 자원 활동을 한 이종일 회원에게 자원봉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누구나 모범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도 2008년 모범회원에 도전해 보세요.

이날 총회와 출범식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였기에 더욱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맛있는 흥어회와 두부김치 등 음식을 준비해주신 이은순 회원, 어린이 노래공연을 지도한 백요순 회원, 전문가의 솜씨로 사진을 찍어준 여영석 회원, 맛있는 유기농 쌀로 만든 막걸리를 강화에서부터 가져온 최장수 회원, 당일 자원봉사를 한 이종일, 진재환, 문한나, 김중오 회원, 어린이 공연을 준비한 천지분회, 율동과 노래를 준비한 노동분회, 통일퀴즈를 준비한 부딿돌분회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남부

경기남부평통사 2008 첫 발돋움 진행하다

1월 25일(금) 저녁 7시부터 경기남부평통사 준비위원회는 2008 첫 발돋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발돋움 행사는 경기남부평통사 건설을 지역에 알리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알려내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등 지역의 여러 뜻있는 분들과 김종일 사무처장님 등 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발돋움 행사에서 준비위원회는 경기남부 평통사 창립 총회를 2월 22일에 열 것을 결정하였고,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에 적극 나설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 보금자리 마련

창립총회를 앞두고 경기남부평통사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평택시내에서 가까운 통복6리 마을회관 2층입니다. 원룸형식인데, 전망과 교통편이 아주 좋아서 경기남부평통사의 근거지로 딱 이랍니다. 입주는 2월 18일에 하기로 하였고, 창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회원 모임과 지역의 평화통일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해결하고자 모금을 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들과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전충남

### 첫 번째 평화산행

맑은 공기와 눈 쌓인 산길은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서로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 매월 대전에 있는 산에 올라가는 거야~~” “회원들도 만나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 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도 맺고~~”

장소도 모른 채 시작한 첫 번째 평화산행, 설레임으로 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계란을 삶고, 과일과 물 등을 배낭 가득 채웠습니다. 회원들이 얼마나 올까? 찬바람 쐹쐹 휘날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3명...

갑하산-구암사를 거쳐 눈길을 걸었습니다. “와~~눈이다” 올 겨울에는 눈을 별로 못 봐서인지 더욱 이쁘게 보였습니다. 감동은 잠시 이제 산을 내려가는데, 파당 파~~당 어~~ 으악 엉덩이는 깨지고 몸은 눈과 함께 산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와서 우리는 삶은 계란을 먹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으며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으니 성공적이다. 다음 산행에는 하나가 둘이 되는 산행을 만들자”고 웃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 주한미군 송유관 기름유출로 시민 상수원 위협

주한미군 송유관 기름유출로 우리의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송유관(포항에서 의정부 : 452km)은 1970년에 설치되어 송유관 노후로 인한 기름유출과 사고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천미군저유소(이하 저유소) 부지와 지하수 기름오염도 2005년 저유소 폐쇄 후 작성된 환경오염조사보고서가 밝혀지면서 기름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 저유소는 대전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와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옆으로 실개천이 있어 기름오염이 이미 대청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도, 1992년 이를 인수받은 국방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충남 평통사를 비롯한 대전 시민사회단체는 1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름오염을 방치한 국방부를 규탄, 책임자 처벌, 즉각 오염치유를 촉구 하였습니다. 향후 세천미군저유소 둘러보기 행사와 캠페인 등 실천 활동을 계속 벌어나갈 예정입니다.

## 전북

### 김형근 교사 관련 사건 경과

- ▲ 2004년~5년 관촌중학교에서 김형근 교사는 반전 통일교육 실천, 당시 관촌중학교는 통일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었고 김형근 교사의 통일교육은 공개적인 수업이었음
- ▲ 2006년 12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의 공격과 공안당국 내사
- ▲ 2007년 1월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김맹규, 최화섭 교사 압수수색후 긴급 체포 현재 재판 진행중
- ▲ 2007년 4월 14일 김형근 교사 가택 압수 수색  
압수자료: 통일 및 북한 관련 유인물, 책과 디스켓, 컴퓨터, 휴대폰 등 75점
- ▲ 5월 9일 대책위의 계속된 요구에 의해 75개 압수물 중 33개 반환됨
- ▲ 김형근 교사 경찰 소환 조사  
(5월17부터 7월9일까지 13차례 소환을 통해 인신확보하고 영장청구 예정이었음)
- ▲ 08년 1월 27일 구속영장 신청
- ▲ 08년 1월 2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

### 김형근 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통일교사 김형근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공안탄압음모저지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 소속 활동가 40여명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를 확대 구성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전북대책위는 곧바로 소속 단체 활동가들의 릴레이 일인시위로 그 실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1인시위

전북 평통사에서는 2월 4일에 이창근 지도위원이 “학생들을 편향된 친북 통일운동으로 이끌었다”는 명목으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창근 지도위원은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반민주 반인권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른 시간에 검찰청 앞을 지나 다니는 행인들과 검찰청 출입 민원인들에게 ‘김형근 교사 구속의 부당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등을 알려냈습니다.

### 김형근 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

2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전북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선생님 석방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북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이번 검찰의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은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어야 할 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통일교육을 방해함으로써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반통일적, 반민족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온갖 부정과 불법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눈에 들어 자신들의 입신을 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구시대적이며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운영위원회와 회원교양

2월 1일 군산평통사 준비모임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2월~3월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박종문, 김인수, 박미라 씨가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여 정회원 36명, 후원회원 14명이 되었습니다. 군산평통사 준비모임은 회원 번개모임을 자주 가져 회원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2차 교양에는 8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김판태 사무국장은 강의에서 “주한미군은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의 질곡의 원천이고, 평화통일의 실질적 장애물이며, 수 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온 국민이 나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대장정 투쟁’을 우리가 앞장서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평화협정은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나이가 많거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산평통사 준비모임은 군산지역에서 평화협정 대장정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2월 28일 또는 3월 6일 경 ‘한반도 평화 강연회’를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군산 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기장군산노회 사회와 평화통일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광주전남

‘신년회’에서 <주한미군 나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힘찬 08년을 결의

지난 1월 10일 광주전남 평통사 신년회가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배종렬 상임대표님은 “지난 한해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광주, 나주, 무안 그리고 해남에서 광주전남 평통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08년 건강하고 더욱 힘찬 한 해를 만들자”고 힘차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창호 교수(공동대표)님의 신년 인사와 중앙에서 광주를 방문해 주신 홍근수 목사님의 격려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참석한 회원들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할 때마다 모두들 뜨거운 격려와 반가움의 인사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땅 끝 해남, 전남 동쪽 끝 광양, 서남부 최남단 무안, 목포 그리고 나주와 광주에서 28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중앙의 유영재 정책실장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과 “평통사 대장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대장정 추진 위원으로 서명하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은 ‘광주전남 평통사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 나주 모임

1월 30일은 배종렬 상임대표와 정동석 국장이 나주 회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배종렬 상임대표께서는 “광주전남 평통사 총회를 앞두고 임원 선출(상임대표)에 대한 의견을 나주지역 회원들과 공유하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정기적인 반미연대 집회 추진, 그에 따른 나주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석한 전체 회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2월 25일 총회에서 만날 것을 결의하며 헤어졌습니다.

## 안동

### 故 권중대 의장 추모식

2008년 1월 19일(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으로 이 땅의 농민운동과 통일운동에 일생을 헌신하셨던 故 권중대 의장의 추모식이 안동 가톨릭농민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장소는 생전 고향이자 선영이 있는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의 묘소 인근이었고 안동 평통사에서는 피재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가톨릭농민회 회원이자 평통사 회원인 강성중, 권기찬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생전 고인의 뜻과 유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전교조 경북지회 통일일꾼 행사에 참여

지난 2월 2일, 안동시 길안면 계명산 자연휴양림내 강당에서 가진 전교조 경북지회 통일분과 통일일꾼 통일연수 행사에 안동평통사 회원 상당수가 동참하여 이 땅의 분단을 걷어내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초빙된 명강사는 미국 아이오와 종교철학부 교수로 한때(2003~2007)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초빙교수로도 복무했던 신은희 교수였습니다. 신교수는 북측 체류 당시의 생생한 자료 화면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북측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매우 유익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교수님의 말씀처럼 통일이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 위해선 “진보”를 자처하는 우리가 당장 무슨 반성부터 하여야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말씀이 새삼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날 같이 한 회원으로는 김창환 회장님과 강석주 사무국장, 그리고 배용한, 김현택, 박용제, 최형석, 한철희 운영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2월 정기운영위원회 및 회원 교양의 날

2월 13일(수) 오후 7시 나섬 학교에서 정기운영위원회를 간략히 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관한 추진개요와 전략에 관한 구체적 일정 등을 중앙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사진이야기 |

주한미군은? 평화와 통일의 횡방꾼!

평화협정은? 평화와 통일의 지침서!

1. 세금도둑 잡아라!

1월 22일 국세청 앞에서 주한미군 탈세의혹 조사 및 이자소득세 징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세청은 끝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자 소득세를 징수하여 혈세 낭비를 막는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미국 이익만 관철하는 SPI 회의. 이제 그만 쫓!!

1월 23일 16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있었습니다. 평통사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MD·PSI 참가반대! 유엔사 해체·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확장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 평화 소망 담은 북, 퍼 담자~

1월 29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75차 신년 평화군축집회를 열어, “2008년을 평화협정 체결하고 군비축소 실현의 해로 만들자!”라고 결의했습니다. ‘평화 소망 북조리’를 달며 새해 평화를 외친 신년 평화군축집회였습니다.

4. 통일을 가르친 죄?

2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통일교육 하자는데 국가보안법 웬말인가? - 김형근 교사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육과 6·15 공동선언을 불운시하는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5. 미군 쓰레기 탄약도 돈 주고 사오는 X들

2월 11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1조원 혈세 낭비, 주민피해, 환경오염 불러오는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 행동 대 행동, 미국이 행동하라, 테러지원국 해제!

2월 12일 미대사관 앞에서 101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에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3월 초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연습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통史(4)

평통사 前史 \_ 반핵평화운동연합

홍보팀장 오 미 정

2008년 1월, 25톤의 짐이 신공덕동에서 충청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중 절반가량이 책과 문서들. 짐을 정리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보물들이 나왔습니다. 신공덕동 사무실 깊숙한 곳에서 사람 손을 타지 않았던 사진과 문서들. 80년대 후반 영광, 울진 등의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 저지투쟁 자료들부터 90년대 초반의 반핵평화운동 자료들이었습니다. 평통사가 한국 평화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는 명실상부한 증거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평통사를 접한 필자는 조직의 뿌리를 찾은 듯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당장에라도 여러 분들과 공감하고 싶은 욕심에 덜커덕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가 귀중한 사료의 방대함에 놀라 내심 소심해진 채로 곁핥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평통사 전사(前史)를 소개합니다. 평통史 4회차에 1991년으로 되돌아간 사연입니다.

1991년 3월 13일 오후 5시. 홍사단 3층 강당에서는 한국사회운동 사상 최초로 평화운동단체를 표방한 반핵평화운동연합이 창립한다.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비약적 성장을 배경으로 반핵평화운동은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과 송악산, 매향리, 군산, 평택, 안면도 등 미군기지, 핵관련 시설, 핵폐기물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으로 발전해 왔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평화운동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롭고 해방된 삶의 주체인 민중과 함께 이 땅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억압과 폭력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창립 선언문 중)

1990년 6월부터 공해추방운동연합 반핵평화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모임이 수차례 열렸고, 1991년 초에는 미-이라크 전쟁(걸프전)에 대한 반전활동을 전개하면서 590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창립하게 된 것이다. 초대 공동의장은 김남주 시인과 김현 원불교 총무가 맡았다. 지도위원 명단에서는 반가운 이름 임종철 공동대표를 찾을 수 있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핵폐기장, 핵발전소 건설 저지 투쟁, 주한미군의 핵무기 폐기 촉구 투쟁,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 등을 과제로 삼고, 일본 자위대의 PKO 파병, 한국군의 PKO 파병, 한미전시접수국 지원 협정을 주요 사안으로 공청회, 집회, 국회비준 반대 투쟁 등 실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미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은 91년 7월 한미 정부사이에 가서명 되고, 91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식 조인한 협정이다.)

또한 기관지 <반핵평화>를 발간하였고(창간호~8호), 3차례의 반핵평화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회원의 날 행사와 기지탐방, 시민 캠페인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 대선을 거치며 김낙중 선생과 손병선 선생 등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지도부가 구속되는 등 공안탄압을 받으면서 반핵평화운동연합은 “조직 자체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의 회지 <반핵평화> 8호에서는 실무자 명의로 “설령 저희 단체가 발전적 해체를 겨냥하여 간판을 내릴지라도 그것은 ‘반핵평화’의 사상-조직적 기반을 오히려 넓히기 위한 잠정적인 ‘깃발내림’일 뿐입니다.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반핵평화운동연합이 지향했던 ‘비핵’, ‘군축’, ‘평화’, ‘통일’의 이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 이념은 1993년~1994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와 새로운 평화운동단체 준비모임 등을 거쳐 평통사로 이어지게 된다.

## 회비와 후원금

### 중앙

[대표/임원] 문규현 홍근수 배종렬 임종철 변연식 홍창의 이관복 강정구 장경옥 임승계 이일영 정순영 김성운

[후원회비] 김도걸 서인옥 유영섭 이은혜 한희숙 박춘원 하정일 이광수 최문숙 이성호 최재영 서경숙 임동명 홍민애

[특별회비] 화이팅 임종철 전영남 이일영 이경옥

[후원금] (주)도프 새길교회 푸른마을교회 박경자(세실리아) 해피빈모금

###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강유점 고이지선(2개월) 공동길 권병근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성운 김순정 김슬기(2개월) 김영진(2개월) 김은아 김종일(2개월) 김종일 김중환 김지수(2개월) 김지영 김진환 김채석 김치섭 김현미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2개월) 남미영 문석우 문성현 박규상 박석분 박정아 박정자 박종국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지은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영석(2개월)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손화정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위선남 유영재 유현규 윤영일 이경목 이민규 이병일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준훈 이행복 이현규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인민지 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장남희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2개월)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 조창현 지안나 최문희 최성민 최소영 추정수 탁재범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2개월) 황규금 황도연 황순영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2개월) 고은숙 곽상진(2개월) 김각영 김나희 김미영 김민이 김병기(2개월) 김복희 김상중(2개월)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옥희(2개월) 김용순 김유중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2개월)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2개월)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신재성 안지성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2개월) 오혜경 윤민재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무 이해용 이연자 이영옥 이은영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선영 한중현 홍길표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용애 강혜선 곽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훈 김성희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숙 노철성 문은정 박병준 박숙경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백창석 서경숙 서명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유영 손석환 손종욱 신장호 신정길 양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윤재윤 이경

숙 이리나 이보영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재 이옥화 이진혁 이해련 임숙영 임채  
경 임현순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장해영 전윤미 정경화 정상희 정용진 정창욱 조미옥 조민  
우 조영선 조지선 주명숙 주영일 주정숙 지은희 지태봉 최경순 최은주 최혜정 최희준 한태  
희 허호인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황의중

####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맹규 김민서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익 김오섭 김은영 김은옥 김인식 김일희 김정녀 김주숙 김호영 김희겸 두현진  
류성훈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혜 서동완 서성덕  
서재훈 서화조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창균 신필녀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수정 오현곤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시우 이용수 이재윤 이종훈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이희환 인수범 임희호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만진 정송호 정재훈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지정희 진재환 차광호 최문석 최병중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홍 중

[후원회비]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맹규 김민서 김병철 김보  
희 김선미 김영익 김오섭 김은영 김은옥 김인식 김일희 김정녀 김주숙 김호영 김희겸 두현  
진 류성훈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혜 서동완 서성  
덕 서재훈 서화조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창균 신필녀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수정 오현  
곤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시우 이용수 이재윤 이종훈 이진권 이진실 이천  
직 이춘식 이현주 이희환 인수범 임희호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만진 정송호 정재훈 정형  
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지정희 진재환 차광호 최문석 최병중 최장수 최종  
락 최현호 한연숙 홍 중

[특별후원] 고영남(30,000원) 김오섭(20,000원) 김원식(100,000원) 류성훈(50,000원)  
박승민어린이(1,000원) 박유순(30,000원) 박창훈(30,000원) 삶이보이는창(300,000원)  
신필녀(50,000원) 유한성(50,000원) 이승미(30,000원) 이준걸(100,000원) 이천직(30,000  
원) 임병구(100,000원) 정송호(100,000원) 조인휘(50,000원)

#### 경기남부평통사(CMS회원만)

황재순 정인교 강상원 장창원 이유빈 이은우 이수용 김효순 이종필 이우곤 윤현수 한민규

####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고양우 권선필 권인 김기수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  
지수 김홍엽 김홍수 남영혜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도신 박석진 박영철 서영완 소종영 송  
관욱 송신근 송원준 손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  
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번영 이영석 이요한 이용구 이재원 이  
종명 이지연 이춘자 이창복 이화자 임수규 전기룡 정순희 정창원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

부활 조성균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함필주 허민정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미경 김판태 김진호 김 삼 김준근 김성훈 김양균 김형근  
김보현 김순희 김종혁 김미주 김대송 김유순 김명근 김동욱 김경수 김아영 김효성 김연태  
남현욱 노승민 라귀인 문영용 문규옥 배철환 박용호 박충례 박영천 박종대 박은경 박노엽  
방용승 송상구 서정대 서현선 서동완 선진숙 신용우 신현욱 신수철 장창완 장수나 장완수  
전해숙 전호일 전호정 전재현 전병생 전용균 정태웅 정용용 정은주 정운승 조관철 조성욱  
조성철 조성숙 조수미 안경숙 양지연 양종진 양정순 양재석 유은선 유재임 유승기 유희탁  
오기주 오창규 오인빈 이중구 이재홍 이수정 이상호 이현수 이금립 이정현 이병식 이병주  
이진규 이병기 이세우 이장우 이경진 이성교 이상호 이용숙 이명자 이창근 최명호 이창구  
임재완 우훈식 유승기 여성구 채운석 최민옥 최수경 최선옥 최희숙 최대준 최기봉 최인자  
최응진 최영목 최성훈 최성웅 추현주 황영하 황인철 황현정 황남인 황두만 허정길 허자영  
현주익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 고흥문 김광훈 김덕현 김병모 김영일 김용성 노준복 박석중 박승규 서창호  
안희만 오승주 유진이 김순중 이보영 이성원 이윤옥 이재원 이재창 이철우 장관철 전영남  
정길주 정동석 정일태 정종득 최병상 최종률 최창현 한강희  
[후원회비] 박승옥 이대준 이현수 정유철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

백창욱 이성일 정용섭 허정호 박순중 고경수 박성민 전창훈 이영훈

안동평통사(CMS회원만)

정복순 윤지홍 최윤환 조선아 권영숙 최형석 최난희 권주원 배오직 김옥희 박화무 김인숙  
이형창 이천우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조현정 김종수 강정구 김태준 임승계 신정길 홍근수 배종렬 홍영진 김경호  
[후원회비] 김해영 강진희 이선엽 고효완 류승화 정향란 한양재 김숙연 성정혜 김미령 박  
복희 한혜영 조미향 민경숙 성경숙 이왕재 이범준 김현미 김창범  
[특별회비] 노재열

\* CMS 출금 회원·후원회원만 반영한 지역도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본부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 캠페인 |

숨겨진 돈을 찾아라 1탄

쓰레기 탄약 사지 마세요!!!

지난 2월 11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군 쓰레기 탄약(WRSA) 매입을 위한 한미간 4차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탄약의 소유주인 미군은 60만톤이나 되는 노후 탄약의 엄청난 폐기 처리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쓰레기 탄약을 기꺼이 사겠노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국방부 앞에서 “쓰레기 탄약”이라고 외쳐왔던 WRSA탄의 관리비용부터 향후 매입 예산까지 낭비되는 우리의 돈은 과연 얼마일까?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 전시비축 예비 탄약

베트남전쟁 직후인 74년부터 한반도에 저장. 30년 이상 노후된 탄약으로 대부분 기능을 이미 상실하여 폐기 처분 직전인 상태.

1. 전국 각지 WRSA탄 관리 부지(저장 창고) 총 1800만평 (30년 이상 한국에서 무상제공)  
= 상암 월드컵 경기장 (21만 6710㎡ ≒ 6만 5669.7평) 274개 만들수 있는 면적... 헉!!
2. WRSA탄 관리 비용 매년 3천억원 = 4인가족 기준 1가구 월 최저 생계비 1,265,848원 (2008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 자료)으로는 23만 6995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허걱!!
3. WRSA탄을 매입할 경우 드는 예상 비용 1조원  
= 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탄 승례문 복원비용의 50배 되는 금액... 허걱!!  
게다가 목조문화재 방지시스템 1년 예산은 1803억원. WRSA탄 안 사면 이 예산을 약 5.6배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예산부족이나 관리 소홀로 불타는 일은 다시 없을텐데... ㅠㅠ